

제2언어로서의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 은 주**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윤 병 천***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에서는 충청권 N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농청년 13명을 대상으로 제2언어로서 수화사용이 그들의 정체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수화 사용이 농아인의 정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19세 이후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경우로서 수화를 학습한 이후 어휘구사능력이나 자기표현 능력,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으며 자신의 청각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농문화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아인에게 조기에 체계적인 수화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정체감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제2언어, 수화, 정체성, 농문화

I. 서 론

언어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은 이미 언어심리학적, 문화 인류학적 정설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Barker, Galssinski, 2001). Austin(1972)에 따르면 주체는 행동하는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 때 정체성 형성은 언어 행위를 지향하려는 개인의 심리내적 작동 위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unjumin@hanmail.net)

*** 교신저자(ybch5778@kornu.ac.kr)

의사소통의 수단이 청인과는 다른 농아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수단은 그것이 수화이던 구화이던 여전히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결정적인 요소이다. 소리의 세계에 제한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농아인에게 있어서 수화는 자신이 속한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언어이다.

농아인에 있어서 수화의 언어적 기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화 사용의 보편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세계농아인연맹에 등록되어있는 국가는 130개국(www.wfdeaf.org)이며 추정컨대 100여개 넘는 수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 갈롯데(Gallaudet)대학의 언어학자 William Stokoe가 미국수화를 현대 언어학에 입각해 분석하여 미국수화가 언어학적으로 음성언어에 뒤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였다(http://de.wikipedia.org).

그리고 1980년대에는 Sandler의 음절표기법을 중심으로 수화 음운론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분류사, 통사론 연구 등 미국수화의 언어학적 기초를 밝힘과 아울러 1990년대에 이르러 수화의 언어학적 연구가 자리를 잡았다. 유럽에서는 이미 1953년 네델란드의 언어학자 Bernard Tervoort가 수화가 농아인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후 1975년 독일의 언어학자 Siegmund Prillwitz가 함부르크대학에 수화 연구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화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웨덴과 영국도 그 뒤를 따랐다(http://de.wikipedia.org).

이처럼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의 광범위한 언어학적 증명으로 말미암아 수화는 농아인들에게 “합당한” 언어일 뿐만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그러나 음성언어와는 매우 이질적인 문법적 구조를 가진 언어임을 밝혔다(Geier, 2006).

수화는 농아인의 진정한 언어로서 계속 연구되어 왔으며 나아가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수화의 섬세성과 복잡성이 보고되고 있다. 수화사용과 함께 농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수업 및 교육에 대한 지식도 성장하게 되었다(Ahrbeck, 1997).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수화가 농아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언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화의 보급에는 많은 사회 문화적 제약이 있어왔다. 다른 장애와는 달리 청각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문제만 해결하면 장애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청인 중심의 사고가 오랫동안 지배하여 왔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 역시 청인 중심의 구화를 선택함으로써 구화만 익히면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청인들은 생각해왔다. 청인은 음성언어 의사소통환경이 농아인에게 부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長南, 2005). 농아인의 90%는 수화를 전혀 모르며 다른 농아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대부분의 농아인들은 청인 부모에 의

해 양육되며, 또한 청인 조부모나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인 가족들은 농아인이 청인 사회에 맞추어 살기를 바란다. 이들은 청인 사회의 적응은 음성언어의 표출·이해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달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Geier, 2006) 어릴 때부터 엄한 구화교육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물론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대화는 구화 중심이고, 학교도 일반학교에 진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인 중심의 문화가 강요되었다. 농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학령기 전 유년기동안 수화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쓰지 않았고 농 학교에 입학하여도 수화교육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농 아동들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다른 농 아동에게서 수화를 배우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교육을 모두 마친 후 청년기에 접어들어 사회적응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일부 농 아동들은 비로소 수화를 제2언어로 배우게 된다(Geier, 2006). 그러나 이 시기는 Chomsky(1968)의 언어발달 이론에 따르면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벗어나는 시기로서 언어로서 수화학습의 최적기를 어느 정도 놓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음성언어를 통해 교육받고 주된 의사소통수단으로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유·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든 많은 농청년들은 자신의 사회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현실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농청년들은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언어 등 갖가지 문제로 고민하면서 농아인의 세계와 청인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에 관한 갈등을 시작한다(長南浩人, 2005).

한 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과 소통하며 그가 속한 문화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나는 누구인가’라는 타인과 자신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성 언어적 소통에 제한을 가진 농아인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정체성 형성의 문제와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의 양적, 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과 사례를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농아인의 농정체성과 이중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김명희, 2002, 배성규, 2006)와 농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준우, 2003), 농아인의 농정체성 척도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염동문, 2009)가 있었다. 그러나 제2언어로서 기능하는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를 청인 중심의 환경에서 수화를 전혀 접하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는 결코 효율적 언어라고 할 수 없는 구화만을 사용해오다가 청년기에 비로소 수화를 학습하게 되는 농청년들의 정체성을 다룬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坂田(1990)의 연구를 통하여 청년기에 비로소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여 수화를 학습하게 되면서 겪는 농청년들의 심리적 고민이 정체성 확립에 큰 변수로 작용함을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청인 중심의 환경에서 자라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한국 농청년들의 수화에 대한 인식과 수화학습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농청년들의 정체성 연구에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언어로서의 수화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농청년들을 대상으로 제2언어로서의 수화학습이 정체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수화사용이 개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수화학습이 농청년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현재 충청권 N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19세 이상 남녀 농청년 13명(여자 8명, 남자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제1언어로 음성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청년기에 이르러 비로소 수화를 제2언어로 학습하였다. 또한 이들 모두 청인부모를 두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 13명중 9명은 가족구성원 중에서 자신이 유일한 농아인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농아인 형제자매가 있었다. 그러나 농아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수화로 소통하지 않았고 구화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	현재 하는 일	수화사용 기간	장애등급	가족의 청각장애 여부
A	여	33세	대학원재학	12년	청각장애 2급	농아인 형제자매
B	여	31세	강사	5년	청각장애 2급	없음
C	여	27세	대학원재학	2년	청각장애 2급	없음
D	남	26세	대학원재학	6년	청각장애 2급	없음
E	남	26세	조교	4년	청각장애 2급	농아인형제자매
F	여	25세	대학생	2년	청각장애 2급	없음
G	여	25세	대학생	3년	청각장애 2급	없음
H	남	23세	대학생	4년	청각장애 2급	농아인형제자매
I	여	22세	대학생	2년	청각장애 2급	없음
J	여	22세	대학생	2년	청각장애 4급	없음
K	남	22세	대학생	2년	청각장애 2급	없음
L	여	20세	대학생	4년	청각장애 2급	농아인형제자매
M	남	23세	대학생	2년	청각장애 3급	없음

2. 연구 절차

1) 면담 실시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질문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즉흥적이고 솔직한 답을 유도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현황(성별, 나이, 현재 하는 일, 수화 사용기간, 장애등급, 가족의 청각장애 여부)에 대한 사전인터뷰는 비디오 촬영과정 없이 한국어로 기록하였으며 그 후 촬영된 심층인터뷰의 내용은 따로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2) 자료 분석

제2언어로서의 수화학습이 농청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화학습 과정의 일반적인 현황과 수화의 언어학적 기능에 대한 견해, 수화사용이 개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내용을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각 연구 대상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후 촬영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사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별 문항영역에 맞게 재정리하였다.

셋째, 주제별 문항영역에 맞게 재정리된 자료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주제에 가장 합당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대로 전사하였으나 분석내용은 한국어 문법구조에 맞게 연구자가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3) 자료 처리

제2언어로서의 수화학습이 농청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인터뷰와 설문 자료의 내용타당성 검토는 현재 국내 관련분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농아인 2명과 관련분야의 현직 대학교수 2명에게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의 촬영 자료에 대한 전사기록은 위의 농아인 2명에게 통역의 정확성을 위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95% 수준 이상의 관찰자 신뢰도를 보였다.

Ⅲ. 연구 결과

1. 수화사용이 개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

1) 수화사용 전 의사소통방식과 견해

연구 참여자 모두는 초·중·고등학교를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음성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여 생활하였다. 다른 사람의 말은 독화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는 음성언어로 시도하였지만 모든 응답자가 어려움이 매우 많았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 위축이나 상대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부모와 학교교사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수업내용을 따라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업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였다. 참여자 B와 참여자 D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수화를 학습하기 전 의사소통은 구화로만 했다.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의사소통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초면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한 친구의 노트를 빌려본다던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여 학업을 진행해갔는데 대학에 입학하니 전공도 서로 다르고 듣는 수업도 다를 때가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는 정말 어려웠고 나의 상황을 주위에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요즘은 대학에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내가 다니던 때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나 혼자 알아서 해결했어야 했다. 친구에게 매번 부탁했고 또 그것이 미안했다. 친구들도 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에 좀 부담스러워했다(참여자 B).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다. 청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의 입모양을 보며 이해했지만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면 립리딩이 쉽지 않았고 상대의 말이 빨라지면 더욱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상대는 좀 불편해 했다(참여자 D).

성장기에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심리사회적 위축과 자존감의 상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수화의 사용과 문장력과의 관계

수화를 사용한 의사소통시에 한국어 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수화사용이 한국어 문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수화와 문장력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농아인들을 오래 만나다보면 자연히 자신의 문장력도 단순해지고 수화를 할 때도 수화에 없는 단어를 다른 쉬운 대체 단어로 바꿔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단순해져서 문장력이 저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본적인 문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책을 읽거나 비장애인들과 대화하면 문장력에 대한 감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와 문장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참여자 B).

수화사용 후 한국어 문장력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대신저나 이메일 같이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 신문이나 책 같은 활자 매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니까 수화와 문장력과의 관계는 없다고 본다(참여자 H).

반면에 수화사용이 한국어 문장력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특히 읽기보다는 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수화에는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조사와 어미의 표현이 없으며 다양한 형용사와 부사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를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문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수화는 그냥 단어 나열식으로 단어들을 연결시켜주는 조사 같은 것이 빠져있어서 수화로 는 한국어문법을 배우기 어렵고 부족한 것 같다(참여자 E).

그러나 응답자 A의 경우, 문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구화로 얻지 못하 던 정보를 수화를 통해 접하면서 어휘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도리어 문장 력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고 대답함으로써 수화가 일방적으로 문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만은 볼 수 없었다.

수화를 사용하면서 문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단어들은 더 많이 알 게 되었다. 예전에 몰랐던 말들을 수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참여자 E).

3) 수화의 사용과 구화력과의 관계

<표 2> 수화의 사용과 구화력과의 관계

A	구화력은 좀 약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예를 들면 예전엔 목소리 톤이 많이 가벼웠는데 지금은 약간 무거워진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C	구화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화할 때는 보통 입을 다물고 하기 때문 이다.
D	좀 떨어지는 것 같다.
F	수화를 많이 쓰면 가끔 구화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말을 잘해도 난 결국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므로 예전보다 좀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언어치료도 받고 있고 수화도 꾸준히 배우고 있다.
G	엄마가 발음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대학 다니는 동안 수화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H	꼭 수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화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수화도 마찬가지로 구화를 자주 쓰지 않으면 많이 떨어지고 단어들도 많이 잊는다.
L	수화를 사용하면 구화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입모양도 크게 하고 발음 연습도 하지 만 가끔 엄마에게 발음이 틀렸다고 지적 많이 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발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부모님에게) 교육받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M	오랫동안 구화를 사용해서인지 아직까진 큰 변화 없다.

수화를 사용한 후 구화력(본 논문에서는 발음이나 발성 모두를 통틀어 뜻하며 음성언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이 떨어졌다고 하는 답변자들(A, C, D, F, G, L)이 대부분이었으나 그에 대한 반응들은 각기 달랐다. 참여자 H, M을 제외하고는 수화사용으로 인해 구화력이 약해진다고 답변함으로써 수화사용과 구화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답변한 반면, H의 경우에는 수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화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화사용과 상관 없이) 구화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약해졌다고 답변함으로써 수화사용과 구화력 저하를 별개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런가 하면 M의 경우 구화력에 대한 숙련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구화력이 충분히 좋으면 수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수화사용이 구화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응답자 중에는 언어치료와 같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한 응답자도 있었다(F).

4) 수화학습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표 3> 수화학습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A	아빠는 좀 개방적이셨다. 수화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라고 하셨다.
B	부모님이 수화를 특별히 반대하시지는 않았다. 다만 내 주위사람들이 모두 청인이라 그들의 언어(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웠다. 4년 전 농 교회에 다니면서 수화를 배우고 있다고 했을 때 별다른 반대는 없으셨다. 그러나 엄마는 나중에 서로 대화가 안 될까 걱정하셨다. 그래서 엄마께 수화를 배우라고 했다. 웃으셨다. 요즘 수화단어 몇 개 아신다.
C	엄마가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실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D	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부모님은 수화를 못 배우게 하셨다. 수화에 대해서 잘 모르셨고 또 수화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화로 교육받고 양육 받았다 ② 대학입학 후 수화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으셨다. 일단 구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부차적으로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E	부모님은 20세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전까지는 수화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릴 때 구화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발성이 안 된다고 하셨다. 지금은 허용하신다.
F	어렸을 때는 수화를 배우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기에 수화를 쓰는 농아인들은 한국어 문법에 약하고 다른 청인들과 의사소통도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 집에 수화책이 한권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림으로 되어있는 책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여 책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더니 엄마가 책을 뺏어가셨다. 그 뒤로 그 책을 다시 보지 못했고 수화를 볼 수도 없었다. 지금은 내가 구화하는데

<표 3> 수화학습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계속)

	문제가 없으니 수화하는 것도 큰 반대는 없으시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볼 때 내가 구화를 배우고 제대로 한국어문법을 익힌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2년 동안 사회생활해본 경험이 있는데 내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배려해주는 것 없었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주지도 않았다.
H	고등학교 때까지는 큰 반대가 있었다. 사실 부모님은 지금도 내가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지만 수화를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사용하면서 또 동시에 구화도 계속 사용하니까 별 말씀은 없으시다.
I	어릴 때 부모님은 수화를 배우는 것에 크게 반대하셨다. 수화로는 청인들과 대화할 수 없으니 구화를 배우기를 강요하셨는데 지금은 구화에 문제가 없어서 인지 수화를 배우도 상관 안 하신다. 구화 배울 때는 정말 힘들게 배웠고 고민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다.
J	수화하면 문장력도 떨어지고 구화력도 떨어진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
K	엄마는 여전히 수화에 반대하시며 난 청인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다.
L	부모님 특히 아빠의 반대가 심하시다. 수화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집에서 주의를 하는데도 가끔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수화가 튀어나와서 아빠에게 지적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빠에게 수화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설득하였으나 수화를 사용하면 구화력이 약해질까 봐 여전히 걱정을 하셨다. 지금은 아빠 앞에서는 구화로 아빠 없는 곳에서는 신나게 수화를 사용한다.
M	중학생 때 TV에서 방송 수화통역을 본적이 있다. 난 농아인데 나는 왜 수화를 안 배우나 궁금해서 엄마께 물었는데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좀 들을 수 있고 구화도 잘 하니까 수화는 배울 필요 없다고 하셨다. 난 남들은 안 갔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뒤로 수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다가 대학입학 후 농아인들을 보면서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수화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엄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의외로 엄마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잘 배우라고까지 하셨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인 사회로의 적응을 위하여 청인 부모에게서 음성언어로 양육 받고 음성언어 의사소통 중심의 청인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보냈다. 참여자들의 청인 부모는 수화로는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으며 청인들과 대화가 안 되므로 수화교육이 아닌 음성교육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대학 입학 후 수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부모들의 반응은 청소년기와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모들이 많았으며(A, B, C, D, E, F, H, I, M) 참여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청인문화와 더불어 농문화에 흡수되어 지내는 것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허용적 태도로의 변화에는 구화사용이 전제 되어있는 경우에 한 해서였다. 참여자들이 구화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모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화사용에 허용 적이었고(D, F, H, I), 자신의 자녀가 수화사용으로 인하여 구화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의 경우 여전히 수화사용을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J, K, L).

5) 수화사용에 대한 청인 친구들의 반응

<표 4> 수화사용에 대한 청인 친구들의 반응

B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나의 구화력이 좀 약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농 사회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편하고 좋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연애상대자로 청인 남자보다 농아인남자를 더 선호한다고 했더니 친구들 모임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만나서 편한 상대자는 농아인이라고 했더니 수긍은 하였다.
D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화가 나온다. 그럴 때 친구들이 궁금해 한다. 청각장애인이므로 의사소통하려면 수화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친구들도 수화에 관심을 보였고 나와 보다 매끄러운 대화를 위해 수화를 배우고자 했다. 수화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듯하다.
E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보인다. 배우고 싶어 한다.
F	내 청인 친구들은 모든 농아인이 나 같은 줄 안다. 장애인이나 농아인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역시 수화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냥 희한한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여긴다.
K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내가 수화를 사용하는지 모른다.
L	친구들은 내가 수화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신기해한다. 나와는 처음부터 구화로 대화했기 때문에 친구는 내가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 못했다고 한다. 친구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좋은 음악이 나오면 내 귀에도 이어폰을 꽂아준다. 친구들이 내가 못 듣는다는 걸 가끔 깜박깜박 잊는 것 같았다.

구화를 할 때 사귀 친구들이 참여자의 수화 사용에 대하여 보이는 사회적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 많은 경우 참여자가 수화를 사용해야 하는 농아인(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은 지각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함께 수화를 마치 외국어와 같은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화 사용이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답하였다. 나아가 수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수화(또는 언어 장애)가 일단 형성된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수화학습이 농청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농아인과 농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표 5> 농아인과 농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A	처음엔 수화와 농아인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했다. 수화가 단지 손동작처럼 보였고 수화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보기에 민망했다. 그러나 수화를 학습하고 난 후에는 농아인의 외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농아인의 생각이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서 선입견이 사라졌다. 그리고 수화로 나를 표현하면서 나를 비롯한 다른 농아인들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B	처음부터 청인문화에 있다가 농문화 환경에 들어와서 이질감 때문에 혼란이 있었지만 농아인의 경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에 대해 잘 알고 인정하면 혼란을 빨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C	농아인사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큰 변화는 없었다. 수화에 대해 평소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F	농 자녀를 둔 청인 부모들 모임에서 농 친구를 소개받았고 그 친구 따라 농 교회에 처음 가봤는데 수화에 관심도 없었고 농아인들은 왜 구화를 배우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수화를 할 줄 알게 되니 새로운 세상에 눈 뜬듯하다. 수화통역서 비스를 받으면서 강의내용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농사회만 있는 게 아니잖나. 청인 사회에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수화만 고집할 수는 없다.
G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나와 같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 이후 내가 경험하면서 느낀 농 사회는 너무 좋다는 것이다.
I	농아인 사회에 별 거부감 없다. 단지 농아인들이 처음엔 나를 농아인으로 보지 않고 청인으로 봐서 그게 좀 곤란했다.
K	농 사회에 이해 안 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두렵다.
M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청인문화가 편하지만 농아인들은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함께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청인들은 내가 잘 듣지 못한다고 여긴다.

제2언어로서 수화학습을 통한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참여자는 농아인과 농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동시에 자신이 속해 왔던 청인 사회의 문화에도 애착을 보였다. 또한 수화사용이 자신을 농아인(장애인)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였으나 도리어 수화를 통하여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

을 경험하고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A, B, F). 그러나 농사회의 협소성(G)과 배타성(I)을 우려하는 응답자와 농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농문화로의 완전 몰입을 힘들다고 한 응답자(K)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농아인과 농문화 그리고 수화에 노출된 기간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문화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는 대부분 오랫동안 농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수화를 배운지 2년 내외의 경우였다.

2) 정체성 확립에 대한 자기규정

① 자신을 농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A, B, C, D, H, J, M)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자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표 6> 정체성 확립에 대한 자기규정 - 농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A	<p>‘나는 그저 다른 아이보다 좀 다르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선생님 말을 다 이해하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실과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신기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뇌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뭔가 빠진 듯 한 느낌만 있었다. 뭔가 장애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수화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p> <p>수화를 익히고 난 후 많이 바뀌었다. 나는 말할 줄 아는 농아인이다.</p>
B	<p>나는 농아인이지만 농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농아인입에는 분명하지만 농 사회나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p>
C	<p>확실히 농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농아인들은 내가 구화를 한다고 농아인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리고 청인들은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농아인으로 본다. 하지만 난 농아인이다.</p>
D	<p>나는 청인이기보다는 농아인이라고 생각한다. 농 사회에서도 생활하고 청인 사회에서도 생활하니까 나는 중간인 인 것 같기도 하다.</p>
H	<p>① 수화를 처음 배우면서 2년 동안 좀 힘들었다. 내가 농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다. 지금은 농아인이라고 인정한다.</p> <p>② 남들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마다 아빠에게 크게 혼났고 아빠는 내게 난 장애인이라 아니라 청인과 똑같고 다른 점은 없다고 하셨다.</p>
J	<p>농아인인 것 같다.</p>
M	<p>원래는 농아인이다. 하지만 청인하고도 대화가 되고 농아인하고도 대화가 되니 구화인이라고 해야 하나?</p>

- ② 자신을 청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K)
- ③ 기타 답변(장애인이다. 청인은 아니다. 구화인이다.)(E, F, G, I, L)

<표 7> 정체성확립에 대한 자기규정 -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E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다. 그러나 완전히 농아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구화인 아닌가?
F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난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여겨왔다. 농아인인지는 모르겠다. 장애는 있다.
G	대입 전까지는 나의 상태에 대해 깊은 고민 안 해봤고 입학 후엔 그냥 구화인인 것 같다. 농아인이나 구화인이나 장애인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엄마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와서 너무 고생했다. 엄마가 농학교로의 진학을 추천하셨는데 난 농아인들과 함께 하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가지 않았다. 난 청인이고 싶었다.
I	확실히 청인은 아니고 농아인 또는 중간정도가 아닐까?
L	난 그냥 장애인이다. 출생부터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으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응답자들 모두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거나 또는 아직도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이 농아인이라고 대답한 경우(A, B, C, D, H, J, M)에도 ‘말하는 농아인’, ‘농아인인 것 같다’, ‘중간 정도의 농아인’ 등 자신을 다양하게 정의 하였으며 이러한 자기 정의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신을 농아인으로 보지 않는 응답자들 중에는 자신을 구화인, 장애인 또는 청인도 아니고 농아인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두 응답자 그룹이 보이는 정체성의 혼란은 응답자들의 면담내용이 대변하듯 그들이 정의하는 농아인은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경우여야 하고, 청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으며 그들의 환경 역시 이들을 대할 때 농아인도 아니고 청인도 아닌 매우 애매한 반응을 보인다(예, C). 이들은 청인과의 의사소통 중에 대화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자신이 남과 다르며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농아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진 병리학적 상태는 확실하므로 농아인이라고 대답하는 대신 ‘장애인이다’ 또는 ‘구화인이다’ 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3) 농문화와 청인문화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의 정도

① 농문화가 더 편하다.

<표 8> 농문화와 청인문화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 - 농문화가 더 편하다

A	나는 나를 말할 수 있는 농아인이라고 생각한다. 수화를 배우고 난 후 내 삶이 많이 바뀌었다. 구화로 연지 못하던 고급 정보도 얻게 되었고 대학도 다닐 수 있었다. 나는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농아인의 문화가 나에게 훨씬 편하다. 물론 청인문화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C	① 농아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생각하므로 농문화가 더 편하다. 직장을 구할 때도 농아인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면 일할 것이다. ② 배우자로 농아인도 괜찮다. 난 청인문화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농문화와 청인문화 모두 이해하며 잘 적응할 것이다.

② 청인문화가 더 편하다.

<표 9> 농문화와 청인문화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 - 청인문화가 더 편하다

B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지만 청인문화가 편하다. 다른 농아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그들은 나를 농아인으로 보지 않고 농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청인 사회에서 온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지체장애인처럼 '장애인'으로 본다.
G	청인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다. 따라서 청인문화가 더 편하다.
K	청인 사회가 편하다. 사람들 속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창피해서 짜증도 많이 났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학과 수업시간에 발표해야 될 때 어려운 점이 많다. 난 수화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수화로 발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냥 구화로 발표하고 싶은데 다른 농아인들이 구화를 모르기 때문에..

③ 농/청인문화 양쪽 모두 문제없다.

<표 10> 농문화와 청인문화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 - 양쪽 모두 문제없다.

D	6년 정도 수화를 사용하고 있고 수화가 너무 만족스럽다. 농문화 청인문화 모두 문제없다.
F	양쪽 문화 다 편하다. 난 이중문화인 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살기 힘들어진다.

④ 농/청인문화 양쪽 모두 불편하다. 잘 모른다.

<표 11> 농문화와 청인문화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 - 양쪽 모두 불편하다.

E	농문화와 청인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청인과의 교류 없이 농아인들끼리만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청인들은 농아인들을 잘 이해 못한다. 문장력이 좋지 못한 것도 무식하다라고밖에 생각 안한다.
H	농문화나 청인문화나 서로 존중하는 편이다. 사실 양쪽 다 좀 불편한 점이 있다.
I	음.. 농문화와 청인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사생활에 대한 것은 청인문화가 더 편하고(농 사회는 소문이 너무 빠르다), 놀 때는 농문화가 더 재밌고 좋다.

청인문화와 농아인 문화 중 자신에게 편한 문화를 묻는 질문에 크게 4가지 형태로 답변하였다.

수화로 의사소통이 능통하게 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농문화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과 안정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C, D, F), 청인문화에 심리적 귀속감을 느끼는 응답자는 자신의 수화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G, K) 또는 구화를 사용하는 자신을 농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농사회의 배타적 분위기(B) 때문이라고 답함으로써 사회정체성 형성에서 그 문화의 언어와 소속감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Teifel(1981)이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밝히고 있다.

구화와 수화 모두 능통한 경우들 중에는 농아인 문화에 귀속성을 보이는 경우(A)도 있었으나 양쪽 문화 모두에 편안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일차적으로 양쪽 문화 모두에서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나아가 농과 청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통합된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양쪽 모두 불편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수화와 구화 사용 능력의 문제, 어느 쪽에 서이건 사회적 소수로 살아야 한다는 점 등이 불편함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수화학습이 농청년들의 정체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화를 학습하는 농청년들의 일반적 사항 조사와 제2언어로서의 수화학습이 농청년의 정체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삼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청년들이 수화를 학습하기 시작한 시기나 그들의 수화학습의 동기가 농청년들의 정체성 갈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수화를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는 갖 학령기를 벗어나서 이제 독립된 사회인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계가 폭넓게 확장되는 시기이다. 의사소통의 기술과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이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자각이 더욱 커지면서 자신의 현재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할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수화의 언어적 기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며, 수화의 언어적 기능성에 대한 공감은 음성언어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 왔음을 반증한다. 이들은 수화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었고, 더 풍부한 교류가 있었으며,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수화가 언어적 기능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언어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이 수화를 언어로써 활용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 발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화학습 전에 모두 음성언어만을 사용해왔던 농청년들은 수화를 학습하면서 그들의 어휘구사 능력이나 자기표현 능력, 대화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아인 사회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발달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질문에 좀 더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는데 방향제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2언어로서 수화를 학습하는 농청년들은 수화 학습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청각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농문화에 대한 귀속감 속에서 발견하였다. 아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으나 분명한 변화는 수화를 통하여 자기 세계가 더 확장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아인들이 흔히 겪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제2언어로써 수화 사용이 농청년의 정체에 중요한 변수임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났다. 그러나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문화적 귀속감에는 개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화의 숙달 정도는 상호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자신이 소속해야 할 문화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수화 능력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적 영향(가족, 친구, 공동체 등) 등도 수화 사용과 함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아인에게 수화의 학습은 좀 더 일찍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의 언어로서 수화는 농아인의 정체감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사자의 시각에서 제기된 농교육의 문제점과 수화 학습 시기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항에 기초하여 수화학습을 희망하는 농아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경진 (2006).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명희 (2002). 청각장애인의 농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성규 (2006). 청각장애인의 이중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안한나 (2005). 재미교포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지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염동문 (2009). 청각장애인의 농정체성 척도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준우 (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長南浩人 (2005). 手話の心理學入門. 東京: 東峰書房.
- 坂田浩子 (1990). 聽覺障害者の自我同一性形成について(Ⅱ) ろう教育科學, 32(3), 109-125.
- Arhbeck, B. (1997). *Gehörlosigkeit und Identität*. Hamburg: Signum.
- Austin, J. L. (1972). *Zur Theorie der Sprachakte*. Stuttgart. Reclam.
- Barker, Ch., & Galasinski, D.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 Chomsky, N.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Harcourt.
- Geier, K. (2006). Kultur und Identität der Gehörlosen vor dem Hintergrund des Eingriffs mit einem Cochlea Implantat. Dilomarbeit v. der Univ. Köln.
- Jones, L., & Pullen. (1992), G. (1992). "Cultural Difference: Deaf and Hearing Researchers Working Together". *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 7(2).
- Tai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웹 사이트

<http://www.wfdeaf.org/>

<http://de.wikipedia.org/>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Sig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on Deaf Young Adults' Identity Formation

Min, Un Ju

Graduate School, Korea Nazarene University

Yoon, Byeong Cheon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depth interview targeting the 13 deaf, who graduated from or are in N university, in Chung-Cheong Areas to analyze impact that using sig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has on their self-identity formation and as a result of it, it found that using sign languag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deaf's formation of the self-identity. It could examine that except 1 participant, every one has learned sign language after nineteen and their proficiency in vocabulary, their ability to self-expression and their capability to understand others are generally increasing and they came to embrace their hearing impairment positively and have attachment to deaf culture. So it could know that if systematic sign language study were implemented to the deaf in early stage, it could have positive impact on formation of identity.

Key Words

: a second language, sign language, self-identity, deaf culture

논문 접수: 2011. 07. 25 심사 시작: 2011. 08. 10 게재 확정: 2011. 09. 26